

공공 채용, 이제 익산 청년시청에서

익산시, ‘청년시청 일자리 통합창구’ 가동… 채용 공고 · 서류 접수 · 심사까지 총괄

익산시가 공공부문 채용을 한 곳에서 진행하는 ‘청년시청 일자리 통합창구’를 본격 가동한다. 익산시는 공공부문 채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취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시청 내에 채용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청년시청 일자리 통합 창구’는 익산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각기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한 곳에서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다. 앞으로는 채용공고부터 서류접수, 심사, 결과 통보까지 모든 절차를 청년시청에서 총괄한다.

시는 매년 하반기 각 부서와 출연기관의 채용 수요를 파악해 정기 통합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필요시 수시 채용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는 △공정하고 일관된 채용 절차 운영 △민원 · 부정 채용 논란 방지 △청년 맞춤형 정보 제공 △기관별 채용 효율성 제고 △우수 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확보 장치도 강화했다. 면접심사는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에서 위원을 선정하며, 심사 전 청렴 서약을 의무화하고 동일 위원의 반복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인다.

첫 적용 사례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으로, 현재 채용공고가 진행 중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8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청년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채용 과정을 통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별 우수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창구 채용 정보는 익산시청 누리집과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 하반기 계획보고 통해 시정 전반 점검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2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통해 익산시 주요 사업의 상반기 성과와 미비점을 짚어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하반기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경진 의장은 “우리 의회는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행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 모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 유의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조규대 의원은 전례 없는 폭염 속 취약 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익산시의 미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조은희 의원은 2026년 사용 총표를 앞둔 석재폐수처리오니 처리시설과 관련해 익산시의 사전 대응 부재를 비판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재구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강화와 관련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임선 의원 마동테니스공원 기간제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반복 및 분장사무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눈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4개 기업 참여 의향 밝혀

우미건설 · 엘에스아이 · 앤에스 · 나무피엠앤씨 등 의향서 제출

익산시의 미래형 주거단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지난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공고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결과, 우미건설과 엘에스아이, 앤에스, 나무피엠앤씨 등 4개 법인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익산시 만경강 일원 141만㎡(약 43만 평) 부지에 미래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청년부터 은퇴 세대까지 아우르는 복합 정주공간을 마련하고, 의료 · 교육 · 문화 시설이 집약된 자족형 도시를 민간 합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만경강 수변도시를 7,000세대



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만금 배후 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공공기관 입주 등 다양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공고 이후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공모지침서질의 접수를 받고, 8월 11일에는 질

의 회신이 이뤄진다.

이어 10월 17일 최종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확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맺고 실제 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법인의 지분율은 익산시가 51%, 민간기업이 49%를 갖게 된다.

양경진 시 건설국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4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했다”며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난 25일 익산시 옹포면 함라산 최북단 녹차밭 일원에서 ‘숲속문화제’가 개최됐다.

익산 함라산에서 즐기는 숲과 문화

산 최북단 녹차밭 일원에서 ‘숲속문화제’ 열려

여름의 푸른 녹차밭과 화사한 수국을 배경으로 익산 함라산에서 시민 300여 명이 숲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지난 25일 익산시 옹포면 함라산 최북단 녹차밭 일원에서 ‘숲속문화제’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익산산림조합(조합장 김수성) 주관으로 열렸으며, 익산산림문화체험관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자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떡차 만들기 △다도

체험으로 차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조성된 녹차 데크길 600m 구간(산림문화체험관~최북단 야생차 군락지) 준공기념 트레킹 행사가 열려, 시민들은 금줄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시는 내년 이후로 수국정원이 더욱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며 익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오투엠, 7억원 상당 생명 구조 마스크 지원

군산시와 지역사회 안전 인식 확산 · 나눔 문화 활성화 협약 맺어

군산시는 지난 25일 생명구조 마스크 전문 제조업체 ㈜오투엠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인명 피해 예방 및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투엠은 화재 재난을 대비해 7억 원 상당의 산소발생 생명 구조 마스크 35,000매를 군산시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군산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기부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오투엠 서준길 대표는 “당사가 개발한 생명구조 마스크가 화재 재난 상황에서 군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임준 시장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



를 위한 ㈜오투엠의 기부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 인식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기업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더욱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기부 이후에도 군산시와 ㈜오투엠은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의식 향상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폭염 대비 주요시설 현장점검 나서

군산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5일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강임준 군산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4토지~리츠프라 자호빌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건설 현장 △나운3동 · 미성동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와 폭염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강 시장은 건설 현장 및 관내 무더위쉼터 내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시설의 작동상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임시 휴게 그늘막 설치 상태 등 전반적인 폭염 저감 시설 점검 및 근로자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특히 노인,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철저히 마련할 것.”



강임준 군산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난 25일 건설 현장과 무더위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을 강조했다. 더불어, 현장 관리 측에도 “폭염이 심한 시간대에는 작업 중단 및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 항상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성공 추진 도모

군산시, 연구용역 · 미래전략 중간보고회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관리운영계획 연구용역 및 미래전략 중간보고회 및 리빙랩 협의체 설명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권 최초의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부시장), 새만금개발청, 전북도청, 농공, 군산대 RISE 사업단, 관내의 수산 식품기업 등 각계각층의 수산 분야 전문가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논의 · 수렴됐다.

특히 전북 RISE사업 ‘동행협력 지역발전’ 프로젝트에 ‘스마트 수산식품 및 해양바이오 중점 리빙랩 협의체 구축’ 사업이 선정되면서 보고회는 더욱 심도깊은 논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고, ‘수산 산업 발전’이라는 난제 해소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수산 식품기업의 장비 · 인력 부족 해결 △소스 연구 및 시제품 개발을 전문가 컨설팅 · 공유시설 활용 · 공동 기술개

발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수립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9월경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현재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작년 10월 약 1,7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민간 분양부지 입주업체(12개소)의 계약체결 및 건축 착공이 속속 이뤄지는 상황이다.

또한 매일 약 3만 톤 규모의 해수 공급이 가능한 핵심 기반 시설인 해수인 · 배수시설과 내부도로 개설 역시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거점시설인 ‘스마트 수산가공센터’의 경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군산대, 영국 우수대학

연구기관 방문 학습 진행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25일 인공지능융합학과와 기계공학부 소속 학생 및 교수 11명으로 구성된 연합팀이 영국의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을 방문해 현지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학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국 현지 방문은 ‘AI 기술의 산업 응용과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G-SEED(Global-Self Exploration and Empowerment for Development) 진로탐색학점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도교수로 참여한 국립군산대 김진영 교수는 “이번 G-SEED 프로그램은 기계공학과 인공지능 융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층적 학습 기회였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군산대 조한규 교수는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

체험형 미식 관광

‘GO! 군산 섬해진미’ 성료

군산시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고군산군도 방죽도에서 진행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군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미식 관광 프로그램으로, 군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K-관광심 육성사업’과 연계해 지역 고유의 식재료와 어촌의 식생활 문화를 접목한 체류형 여행 콘텐츠로 기획됐다.

여행 일정은 △지역주민이 직접 만들어주는 섬 밥상 1박 4식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촌 미식 체험 활동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강좌(쿠킹클래스) △섬 주민과의 미식 문화 토크 및 바비큐 파티 △섬 해설과 걷기 여행(트레킹) 체험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어촌 체험에서 낚시와 고동잡기를 통해 섬 고유의 식생활 문화를 직접 경험 하였고, 이어진 요리 강좌(쿠킹클래스)에서는 자신이 채취한 해산물로 음식을 만들어보며 특별한 미식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만호 기자

‘시간의 금고, 인화동 숨결’

30일 익산숨리문화의숲서

익산시는 창작 낭독극 ‘시간의 금고, 인화동의 숨결’을 오는 30일 오후 7시 익산숨리문화의숲 2층 소극장에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인화동에서 실제 있었던 독립운동의 기록과 주민들의 구술자료를 토대로 익산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인화동 주민을 포함한 시민들은 지난 6월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교육 ‘독립의 꿈, 인화동 이야기’를 통해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대본은 교육 중 심화와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집필해, 인화동의 역사를 주민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운영된다. /익산=이재춘 기자